

# 安全對策은 危險對策

## ■ 안전은 확보하고 싶은데 투자는 아깝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안전은 지키고 싶지만, 안전대책비용이란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삭감하거나 아예 지출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영자를 설득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인식시킬 수 있는가가 안전담당자의 당면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방침이 가장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눈을 안전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안전담당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지혜를 짜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법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대기업에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어느 기업에서나 실무자의 고민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 안전에 관한 비용의 획득에도 전사적(全社的)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내의 목소리를 집약하여야 할 것이다.

## ■ 투자하는 안전대책에 따라 작전도 변한다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의 획득 작전도 투자 대상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전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영자에 대하여 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이론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입장이 되면 체면상으로는 안전한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사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막상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여야 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안전을 위하여서는 아무리 지출한다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실무자의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경영자를 납득시키기 위하여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과 최소의 비용을 도출해 내야 한다.

## ■ 안전대책이란 곧 위험대책이다

안전대책이라고 말하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위험대책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경영자에게도 이와같이 위험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경영자로서는 위험한 설비, 위험한 장소를 알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안전의 밸런스슈트가 필요하다

안전활동의 효과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안전활동이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그의 밸런스슈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것은 최고경영자를 납득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활동의 결과관 늘 추측이 되기 때문에 작성상의 곤란한 점도 있지만, 과거 재해사례에서의 손실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특히 간접손해 부분에 대한 것과 구체적인 위험대책이 표현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안전이란 약간의 편법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와 사원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최선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㉞